

조선중기 일상복의 색상연구(Ⅰ)

- 16·17세기 출토복식 중심 -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장인우

目次

I. 들어가는 글	V. 맺는글
II. 한국의 전통복식과 색상	참고문헌
III. 조선중기 출토복식과 색상	ABSTRACT
IV. 조선중기 일상복 색상의 특징과 그 의미	

I. 들어가는 글

색(色)이란 빛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물질로써 우리는 그 명도와 채도를 통하여 색을 인지하게 된다. 색상은 인류에게 정서와 정보를 상징함으로써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며, 또 안료나 혹은 물감을 통하여 재현된다¹⁾. 이러한 색상의 역할은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매체에서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정서를 상징하는 감각의 매체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색을 구분하는 인지방법도 단순 명칭보다는 색의 명도와 채도를 더 중시하게 되었

으며, 한국복식의 경우 현존 착용하는 한복의 색상은 과거 유물의 색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자연염색과 화학염색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실물의 색상을 명도와 색차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전통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실물복식의 색상을 명도와 색차를 통하여 과거 색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색상이 지니는 당시의 정서를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 복식연구에 있어서 유기체인 의복이 지니는 보존의 한계는²⁾ 색상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색상연구는 문헌³⁾이나 회화⁴⁾ 중심으로 이루어져

※ 본 논문은 1998년도 인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p10-11, 1991.
- 2) 특수복은 문헌과 후기의 소장유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일상복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의 벽화 혹은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한 간접방법으로 알 수 있었다.
- 3) 정현경, 색동옷의 시각적 반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朴相義, 색동에 관한 연구, 이대교육대학원, 1978.
- 이경희, 한·일전통색의 삼색성에 있어서의 분포특성,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5호, 1995.
- 김지연·김영인, 한국인의 녹색 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제5호, 1995.
- 이경희, 전통색에 대한 한·일 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9호, 1997.
- 강운숙, 복색에 나타난 五行色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1993.
- 강운숙·이순홍, 服色에 象徴的 意味에 관한 研究, 복식 제30호, 1996.

왔으며, 실물연구의 경우 대부분 유관상의 색상분류⁵⁾이며 면설에 의한 색상분류⁶⁾는 일부에 그치며, 이외에 전통색연구는 염색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70-80년대 국토개발에 의해서 발굴된 많은 출토복식으로서 이러한 실물복식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일반인의 일상복으로서 중요성을 지니는⁷⁾ 16·17세기 출토복식 중 총복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유물 31점의 부위별 색상을 Minolta Chroma-meter CR-200⁸⁾으로 색의 L*a*b 값 즉 명도와 색차를 측정하였고 이를 Methemetic을 이용하여 L*a*b값의 3차원 위치를 통하여 동일 색상안에서 명도와 색차의 분포를 살펴보고, 또 Photoshop으로 그 색을 재현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하여 조선중기 일상복의 색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물의 색상측정과 그 재현은 유물 보존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유물의 상태

와 앞으로의 퇴색(변색)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출토복식의 명칭과 색상명은 첫 발굴보고서에 명명된 명칭을 사용하겠다.

II. 한국의 전통복식과 색상

한국복식에 있어서 색상은 금제항목 중 하나로 의복작용에 있어서 비교적 제재가 많았던 항목이다. 이러한 고유 색상의 근간을 이루는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복 색상개요와 그 사상적 배경

한국복식을 대표하는 색상은 백색(白色)·색동(色同)·청홍(靑紅)의 음양배색(陰陽配色)⁹⁾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백색은 우리민족을 백의민

柳恩熙, 韓國의 白衣象徵에 관한 研究, 服飾 제20호, 1993.

이은주, 한국전통복식에서의 청색과 흑색, 의류학회지, 18권 제1호, 1994.

- 4) 황효창, 한국전통미술에 있어서 色彩에 관한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康東彥, 東·西洋 繪畫史에 나타난 色彩의 比較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1.
- 金英淑, 朝鮮朝 後期 風俗畫의 考察, 弘益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池尙賢, 색채이상과 形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7.
- 朴桂香, 朝鮮後期 人物畫 設彩에 關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1.
- 李周妍, 색채기법에 의한 한국적 색채의 추구, 이대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경인·이양섭·小林 正美, 조선시대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제3차학술발표회, 1995.
- 5) 정현경, 색동옷의 시각적 반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최옥자, 실물로 본 색채(色彩)와 무늬의 고찰, 복식창간.
- 임영자, 실물로 본 색채와 무늬의 고찰, 복식3호.
- 심화진, 兒童韓服에 나타난 色과 文樣에 관한 研究, 복식35호, 1997.
- 정유나, 慶運宮(현 덕수궁) 諸殿閣의 내외부 채색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제7호, 1996.
- 경운궁채색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유형후출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제9호, 1997.
- 이경희, 전통색에 대한 한·일 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9호, 1997.
- 6) 李良燮, 13-15세기 한국직물의 색채고찰.
- 7)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30.
- 8) Minolta Chroma-meter CR-200은 색상을 수치로 측정하는 기구로서 여기서 Muncell(HVC)color와 L*A*B* system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L*측은 White(+)-Black(-), A*측은 yellow(+)-Blue(-), B*측은 Red(+)-Green(-)으로 나타낸다.
- 9) 주2·3·4·5참조

족이라 칭할 정도로 한(韓)민족을 대표하는 색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백의는 삼국시대부터 문헌에서 그 착용을 알 수 있으며,¹⁰⁾ 고려시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했던 백저포의 착용¹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실제 백의 착용이 사회적으로 금지되었음을 볼 수 있으나 유교에 의한 엄격한 상례시행에 따른 대가족제도가 상복(喪服)인 백의착용을 일상화하였다.¹²⁾ 이러한 백(白)은 단군신화에서부터 비롯되어 태백에서 나온 것으로 태양과 같은 밝음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 산이름에 '백' 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¹³⁾ 역시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을 상징한다. 즉 백(白)자는 종교사상과 문화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백의민족이란 백(白)자와 관련된 문화인 '뽕'의 문화로서 뽕의 문화를 지닌 민족임을 의미한다¹⁴⁾.

다음으로는 청색(靑色)과 적색(赤色) 혹은 흑색과 백색의 음양배색이다. 이러한 색의 사용은 남자의 심의(深衣)의 선(襪)장식과 여자 원삼(圓衫) 안감의 선(襪)장식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의 의복인 심의의 경우는 양(陽)을 상징하는 백색바탕에 음인 흑색의 선장식을 볼 수 있으며, 여자의 의복인 원삼의 안감(裏)에서는 음(陰)을 상징하는 홍색 바탕에 양인 남색의 선장식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음양사상(陰陽思想)에서 음(陰)을 상징하는 적(赤)색과 흑색(黑), 양(陽)을 상징하는

청색(靑)과 백색(白)을 들 수 있다¹⁵⁾. 이는 의복을 하나의 우주로 봄으로써 우주를 이루는 음과 양을 색으로 상징하는 음양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복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보색의 배색으로 된 색동(色同)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삼에 있어서 색동소매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향기나는 소매(香袖)¹⁶⁾의 후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색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색동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귀부인의 치마에서 흑·청·홍·백·황의 5가지 색의 정색(正色)으로 이루어진 반면 시대가 내려올수록 어린이의 의복인 가차 두루마기나 오방장 두루마기 등에서는 흑색을 제외하고 정색과 간색(間色)이 혼합된 색동임을 볼 수 있다. 이는 길상(吉祥)의 의미로 어둡은 흑을 생략함으로써 밝음을 강조¹⁷⁾하려는 한국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색동의 오방색은 우주가 물·불·금속·나무·흙의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오행설(五行說)에 의해 비롯되었다. 즉 오방색(五方色)은 물을 상징하는 흑색(黑色), 금속을 상징하는 백색(白色), 불을 상징하는 적색(赤色), 나무를 상징하는 청색(靑色), 흙을 상징하는 황색(黃色)이었다. 특히 이러한 5가지 색을 정색이라 하며, 두 정색(正色)을 혼합한 벽(碧)·녹(綠)·류(靚)·자(紫)·홍(紅) 등을 간색(間色)¹⁸⁾으로 구분한다. 특히 오늘날은 정색뿐 아니라 간색을 함께 사용함으

10) 三國志集解, 魏書 東夷 夫餘.

在國衣裳白, 白布大袂, 袍袴, 履屨 出國則尚 繪繡錦 食飲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 隋書81, 新羅傳, 衣服略高句麗百濟同 服色尚素

11) 국역 高麗圖經, 고전국역총서1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pp.69-123.

第七卷, 冠服 王服, 燕服, 白紵袍.....民庶無別.....

第十九卷, 民庶, 農商, ...白紵袍.....國官貴人退食私家則易服之惟頭巾以兩帶 爲辨...

12)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p10-13.

13) 백두산(白頭山)을 비롯하여 장백산(長白山)·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白山)·백마산(白馬山)

14) 閔周植, 《韓國古典美學思想의 展開》, 《韓國美學試論》,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P20.

15) 柳正東, 〈한국성리학의 기초〉, 《東洋哲學의 基礎的 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6, p.459.

16) 家禮源流, 서울대학교奎章閣圖書番號1633, 大衣.用色絹或紬爲之.制見下祭禮朔參條.

備要所謂圓衫,即家禮之大袖而俗制圓衫則對衿,後長前短,又於袖端,以彩帛施數層,謂之(燕香袖),詭異不經,若去燕香袖,使前後無長短,得如裾齊則爲有袖背子.制見上冠禮并陳服

17) 심화진, 앞글, p.99.

로써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의복에 나타나는 색상은 음양사상과 오행설 그리고 건국사상인 붉사상이 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복에서의 색상구성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는 사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특수복과 일상복 색상의 특징

한국복식은 제복(祭服)·조복(朝服)·상복(常服)과 관리의 관복(冠服) 그리고 군인의 군복과 같이 의식이나 혹은 공식적으로 착용하는 의례복과 누구나 항상 착용하는 일상복으로 이루어졌다¹⁸⁾. 조선 중기 일상복의 색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착용목적에 따른 의례복에서의 색상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일상복에서의 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의례복 색상

왕의 제복(祭服)인 면복(冕服)과 관리들의 관복(冠服)에서의 색상을 살펴보면 면관(冕冠)에서 표현리강(表玄襄降)으로 겉과 안의 색에서 같은 양의 현(玄)을 안은 음(陰)의 홍색(紅色)을 사용하였다. 면류(冕旒) 역시 주(朱)·백(白)·청(靑)·황(黃)·흑(黑)의 오방색(五方色) 사용하였고, 푸른색의 상의(上衣)와 붉은 하상(下裳)으로 그 색상구성이 음양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리들이 공무(公務)시 착용하는 공복(公服)인 관복은 백제에서는 관대(冠帶)의 색으로 자색(紫色)·조색(皂色)·적색(赤色)·청색(靑色)·황색(黃色)·백색(白色)을 사용하였고 그 복색으로는 홍

색(紅色)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와 고구려에서도 신분에 따라 복색을 달리하였으며,²⁰⁾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는 홍색·청색·녹색을 사용하였다. 관복에서의 색은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기호로써 사용되었다. 이외에 군복은 좌용군인의 지위와 위치를 상징한다고 할 때 특히 전쟁시의 갑옷(甲冑)에서는 그 색을 통하여 각 위치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오방색을 통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다 할 지라도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복에 나타난 색상은 음양사상이나 오행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상복 색상

(1) 조선이전 시대

삼국시대의 일상복 가운데 의례복으로 보이는 양직공도(梁職貢圖)의 백제국사의 의복과 당이현묘벽화(唐李賢墓壁畫)의 신라인의 의복에 나타나는 가선(加褊)에는 자색·주홍색·회색·갈색으로 다양하다.²¹⁾ <표-1>은 삼국시대 벽화에 나타난 색상을 착용자의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그 색상은 자색·적색·황색·백색·흑색·갈색·녹색·청색 등 다양하다.

<표-1> 삼국시대 벽화에 나타난 의복색

고분	성별 종류	남			녀		
		포	상	하	포	상	하
안악3호분	인물풍속	紫			紫	白	白·黑
감신총	감신총	赤	黃	赤·黃			
덕흥리	덕흥리	紫·黃		紫·黃		赤·紫	赤
수산리		白		白·黑	黑·白	赤·黑	
쌍용총		赤·白·靑		白·靑		黑·綠	白·靑

* 유송옥 「고구려 복식연구」 참조.

18) 星湖僊說, 卷2, 萬物間彩色.

……禮疏云金色白 金克木 木色靑 靑色間色碧 水克土 土色黃 靑黃間色綠 土克水 水色黑 黃黑間色駟? 水克火 火色赤 赤黑間色紫 火克金 金色白 赤白間色紅 ……

19) 高福男, 韓國傳統服飾研究, 一朝閣, 1986, p.10-12.

20) 曹圭和, 百濟服飾研究, 한국의류학회지 Vol.4, No.1&2, 1980, p.52-54.

21) 金銀姬,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과 日本植輪 服飾比較, 梨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19

<표-2>는 삼국시대 문헌에 나타난 의복의 색으로 자색·비색·청색·황색 등이 나타났다. <표-1>과 <표-2>를 비교하면 벽화에서는 백색을 볼 수 있었던 반면 문헌에 나타난 의복명은 유색(有色)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벽화에서는 일반인의 평상복이, 문헌에서는 지배계층의 의복명이 그 대상이었던 차이라 유추한다. 그러나 백제인과 고구려인은 백의 착용을 좋아했을까²²⁾ 아니라 일상복에서 유색사용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 삼국시대는 자색과 흑색을 고려시대는 황색을 즐겨 사용하였다.

<표-2> 삼국시대 문헌에 나타난 의복색

사기명(史記名)	의복명(衣服名)
三國史記色服 新羅條	表衣·紫衣·緋衣·靑衣·黃衣·紫皮靴·烏皮靴
三國史記色服 新羅本紀	赤袴
眞聖王朝	
三國史記色服百濟本紀	紫大袖袍·靑錦袴·烏鞞履
古尔王條	
唐書 東夷 新羅	褐袴
唐書 東夷列傳條	大袖紫袍
舊唐書列傳 東夷條	大袖紫袍
舊唐書 音樂 高句麗	黃襦·赤黃袴·黃襪·紫皮靴·赤皮靴
舊唐書 東夷傳 高麗	黃鞞履
舊唐書 東夷 百濟	紫皮帶
北史列傳高句麗條	黃鞞履·紫皮靴
北史列傳 通傳 百濟	紫·烏·赤·靑·黃·白帶

* 이여성 조선복식고 참고.

III. 조선중기 출토복식과 색상

본 장에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 중 조선중기 의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류와 저고리류 31점의 색상을 Minolta Chroma meter를 이용하여 각 의복의 색상을 L*a*b system으로 측정하였다. 의복의 각 부위별로 측정²⁴⁾한 약 92 sample은 [표-3]과 같다. Methmetica 3.0에 의하여 L·a·b의 3차원의 위치를 통하여 그 분포를 살폈으며, 또 각 측정치 L*a*b값은 Phoposhop4.0에 의하여 그 색을

재현하였다.

1. 출토복식에 나타난 색상

<표-3> 조선중기 출토 포와 저고리의 색의 측정치

출토지	명칭	역할	부위	번호	소재	색상	L*a*b					
							L	a	b			
조영리	구례손씨 숨회장 저고리	겉옷	소매	n1	s	황색	90.18	+0.09	-0.33			
				n2	s	갈색	70.30	+4.22	-1.20			
				n3	s	소색	86.16	+1.28	+1.41			
				n4	c	소색	98.38	+1.58	-15.49			
후곡리	전박장군 남명 주저고리	겉옷	몸판	n5	s	남색	37.75	+9.31	-27.62			
				n7	s	소색	87.50	-0.70	-4.06			
				n8	c	소색	103.12	-0.18	-16.74			
				n9	s	소색	87.43	+0.04	-2.65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전면	n11	s	갈색	63.20	+6.09	+20.20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목단문단 견당저고리	몸판	s	갈색	n14	s	갈색	69.27	+8.10	+28.13
							n15	s	소색	84.83	+5.62	+18.33
							n16	c	소색	106.56	+2.91	+0.74
							n17	c	소색	85.38	+5.24	+8.14
후곡리	전박장군	발침옷	겉감	n18	c	백색	96.44	+4.53	+9.16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길	n20	s	백색	n20	s	백색	95.85	+3.30	+8.84
							n21	s	백색	92.33	+2.32	+6.56
							n22	s	갈색	73.70	+7.15	+27.92
							n24	?	소색	69.57	+8.00	+18.80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전면	n25	s	갈색	n25	s	갈색	60.88	+7.59	+23.79
							n27	s	갈색	73.56	+7.27	+22.59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길	n28	s	갈색	n28	s	갈색	80.97	+6.87	+22.06
							n30	s	소색	83.23	+6.52	+15.85
							n33	?	소색	97.34	+4.47	+14.29
후곡리	전박장군	발침옷	길	n34	c	갈색	n34	c	갈색	91.59	+3.53	+8.20
							n35	c	소색	94.45	+4.28	+12.45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길 (견)	n36	s	녹계열	n36	s	녹계열	74.71	+3.54	+18.88
							n40	s	갈색	42.05	+8.15	+9.85
							n41	s	갈색	74.78	+7.19	+22.02
후곡리	전박장군	겉옷	길	n42	s	황색	n42	s	황색	61.88	+8.71	+25.05
							n44	s	소색	70.81	+8.73	+24.60
							n45	c.s	소색	86.28	+6.18	+11.94

22) 三國志集解 魏書 東夷 夫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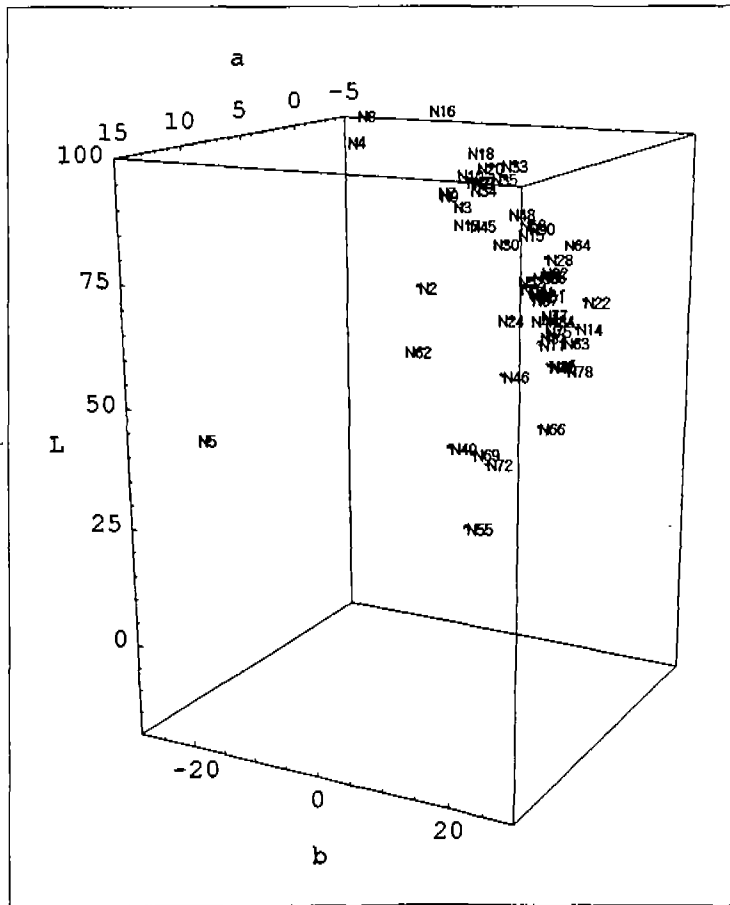
在國衣裝白, 白布大袂, 袴袍, 履革 出國則尚 繪纁錦 食飲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

23)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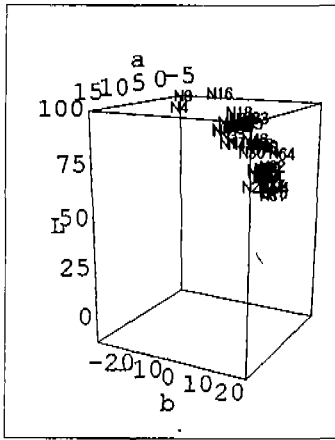
24) 일부 한국의복은 깃·끝동·무·고름 등 구성요소에 따라 그 색을 달리함에 따라 측정 sample이 증가하였다.

순천 김씨	갈색명주누비 비철릭	발침옷	전면 n46	s	갈색	54.47	+5.01	+13.23
			앞쪽 n47		갈색	50.53	+5.03	+13.90
순천 김씨	소색모시철릭	발침옷	전면 n48	l	소색	84.50	-0.23	+8.97
순천 김씨	소색명주누비 속곳	속옷	전면 n50	s	소색	72.97	+1.81	+15.53
순천 김씨	소색명주누비 속속곳	속옷	전면 n51	s	소색	69.78	+2.58	+17.59
후쿠리 전박 장군	소색무명 습창의	발침옷 ?	길 n52	c	소색	71.26	+1.12	12.40
			동정 n53		소색	69.92	+2.49	+16.06
			소매 n54		소색	69.33	+0.83	+12.43
			소매 n55	c	농갈색	27.72	+9.34	+14.12
후쿠리 전박 장군	농갈색장의	겉옷	전면 n56	c	소색	82.68	+0.05	+11.07
후쿠리 전박 장군	소색무명구의	겉옷	전면 n60	c	소색	73.65	+1.33	+12.30
후쿠리 전박 장군	소색무명도포	겉옷	n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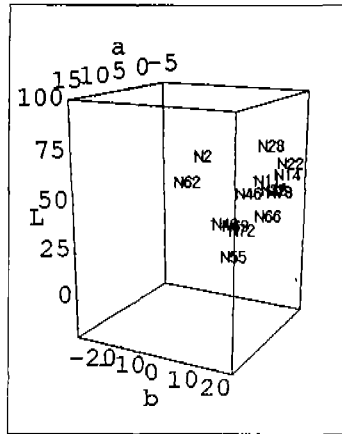
후쿠리 전박 장군	청색무명 결창의	겉옷	소매 n62	c	청색	46.72	-4.52	-15.02
			전면 n63	c		52.61	-4.97	-11.82
후쿠리 전박 장군	소색명주 누비동방형포	발침옷	전면 n64	s	소색	79.93	+1.19	+19.44
			김위	갈색명주 결직령	발침옷	길 n66	s	갈색
김위	갈색명주누비장의	겉옷	전면 n69	s	갈색	40.03	+7.05	+11.72
			김위	갈색명주결철릭	겉옷	길 n72	s	갈색
김위	소색명주결철릭	발침옷	소매 n73	s	갈색	33.23	+4.62	+8.73
			전면 n75	s	소색	64.08	+3.90	+20.37
김위	여자색명주출철릭	겉옷	안감 n77	s	소색	66.88	+3.59	+19.32
			전면 n78	s	여자색	56.01	+4.02	+21.62
김위	소색명주누비장의	발침옷	전면 n81	s	소색	63.15	+4.31	+20.16
			김위	소색명주장의	발침옷	몸판 n84	s	소색
김위	소색명주장의	발침옷	결감 n87	s	소색	69.12	+2.66	+16.58
			김위	소색무명 누비장의	발침옷	전면 n90	c	소색
김위	소색무명 누비장의	발침옷	전면 n92	c	소색	74.93	+2.82	+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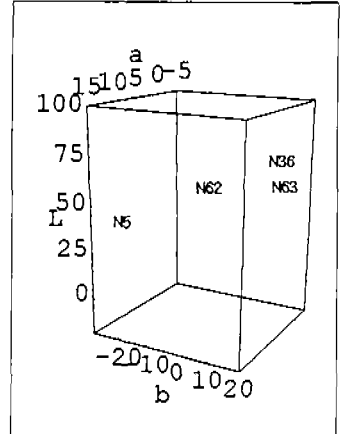
<그림-1> 조사의복 L*a*b 측정치 3차원그래프



<그림-2> 백색 L*a*b 측정치 3차원그래프



<그림-3> 갈색 L*a*b 측정치 3차원그래프



<그림-4> 청색 L*a*b 측정치 3차원그래프

1) 백색계통

[표-3]에 의한 측정색상 중 백색계에는 N3 · N4 · N7 · N8 · N9 · N10 · N15 · N16 · N17 · N18 · N19 · N20 · N21 · N24 · N30 · N33 · N34 · N35 · N41 · N44 · N45 · N48 · N50 · N51 · N52 · N53 · N58 · N60 · N64 · N75 · N77 · N81 · N84 · N87 · N90 · N92 등으로 32개의 sample이 있었으며, 색상의 분포는 <그림-1> · <그림-2>와 같이 Photoshop에 의한 측정치 L*a*b의 값의 재현된 색은 <표-4>와 같다.

(Chroma-meter에 의한 L*a*b의 측정치는 소수들째 자리까지 측정하였으나 재현시에는 정수로 반올림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에 의한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백색계의 측정치 가운데 명도를 나타내는 L축은 63.15~106.56(43.45)에, a축은 +4.31~-0.23(4.54)에, b축은 +22.31~+8.97(13.34)에 분포된다.<표-3> · <그림-1>참조. <그림-1>과 <표-4>에 의하면 백색계통은 크게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룹1은 N8 · N16 · N4이다. 그룹 2는 N18 · 20 · 33 · 10 · 21 · 35 · 7 · 9 · 3 · 34 · 17 · 45 · 48 · 58 · 90 · 15 · 60이며, 그룹3은 N64 · 92 · 52 · 50 · 54 · 24 · 44 · 77 · 75 · 81이다. 이 3그룹의 차이는 L값과 b값에서 볼 수 있다. 즉 첫째 그룹의 L값은 가장 높은 반면 b값은 가장 낮고, 그룹 2는 L값과 b값이 중간이며,

그룹 3은 L값은 낮은 반면 b값은 가장 높다.

이러한 백색계의 3그룹 중 그룹 1은 출토 당시 복원된 부위로 요즘 옷감이었다. 그룹 2는 그룹 3과는 황변의 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표백유 · 무(有 · 無)에 따른 것이라 추정한다. 이러한 당시 직물의 표백 유무는 동가측정(銅價側定) 즉 직물에 잔유된 구리의 함양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숙은 동시대의 광주 충장사 유물복식의 일부를 조사하여 면직물의 표백처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²⁵⁾ 이태령은 이러한 출토 복식의 표백처리를 증명하였다.²⁶⁾ <표-4>에 의하면 표백을 한 직물의 의복은 오랜 세월에서도 미색을 띄고 있으나 흰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공하지 않은 직물은 황변에 의해서 갈색에 가까운 미색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백색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백색(白色) · 소색(素色) · 호색(縞色) 등 다양하나²⁷⁾ 그 가운데 '白' 과 '素' 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 뜻은 모두 옷감 원래의 색 혹은 특정 색이 없는 색²⁸⁾ 육안상 염색되지 않은 색의 의미로 두 용어를 뚜렷히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은 표백한 백색과 자연 그대로의 소색으로 구분함에 따라 과거 실물복식인 출토복식의 보고서에서는 염색되지 않

<표-4> 백색계 유물의 변화된 현존색상표

색상	Group 1			Group 2															Group 3										
	측정번호	N 8	N 16	N 4	N 18	N 20	N 33	N 10	N 21	N 35	N 7	N 9	N 3	N 34	N 17	N 45	N 48	N 58	N 90	N 15	N 30	N 64	N 92	N 52	N 50	N 24	N 44	N 77	N 75
측정부위	팔동	팔동	안감	길	길	안감	안감	깃	안감	등정	팔동	등정	길	안감	안감	길	길	길	등정	등정	길	길	길	속곳	안감	등정	안감	길	길
소재	s	s	c	c	s	s	s	c	s	s	s	c	c	c	s	s	c	c	c	s	s	s	c	s	s	s	s	s	s

은 대부분의 의복 명칭에 대하여 백색보다는 소색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본다.(<표-3> 참조) 이에 의하면 백색계의 3그룹 중 그룹2는 백색에, 그룹3은 소색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2) 갈색계통

<표-3>에 의하면 출토복식가운데 갈색은 N1 · N2 · N11 · N14 · N22 · N25 · N28 · N40 · N42 · N46 · N55 · N66 · N69 · N72 · N78 등의 16개 sample이 있으며, L*a*b* system에 의한 색상의 분포는 <그림-1> · <그림-3>와 같으며, 그 재현된 색상은 <표-5>와 같다.

<표-5> 갈색계 유물의 변화된 현존색상표

색상												
측정번호	N 28	N 22	N 14	N 11	N 25	N 46	N 78	N 66	N 40	N 69	N 72	N 55
소재	s	s	s	s	s	s	s	s	s	c	s	c

전 박물관 묘에서 출토된 농갈색 장의(N55)의 L*a*b* system (L 27.72, a 9.31, b 11.12) 값은 다른 갈색과 비교할 때 L값은 제일 낮은 반면 a값은 가

표-3 과 그림-1 에 의하면 갈색의 L*a*b* system 측정치 가운데 L값은 80.97 ~ -0.33 (81.30)에 a값은 9.3 ~ -1.52(13.52)에, b값은 28.13 ~ -15.02(43.15)에 분포되었다. 여기서 L*a*b*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갈색은 백색보다 훨씬 넓게 확산되어 그 색의 범위가 넓은 의미를 의미한다. 조사유물의 명칭에 나타나는 용어에는 갈색 · 겨자색 · 황갈색 · 농갈색 등이 있으며, 갈색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심향색(沈香色) · 호박색(琥珀色) · 장색 · 타색(駝色) · 양색(壤色) · 고등색 · 심향색(深香色) · 추향색(秋香色) · 갈색(褐色) · 갈금색(褐金色)²⁵⁾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갈색유물 중

장 높은 것으로 다른 유물과는 상반된 측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동 출토지의 갈색무단 치마의 측정치(L 35.1, a 1.8, b 12.1)²⁶⁾와 비교할 때

25) 이정숙, 조선시대 민직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26) 재인용, 김전: (일본) 공업화학잡지 58 274, GG7(1955) 38 이태녕.
 27) 국립미술관, 앞책, P.81-82.
 28) 辭海, 臺灣中華書局印行, 素色也, 五色之, 西方色素也, 無也.
 白也, 生帛 禮記, 雜記, 재인용
 29) 국립현대미술관, 앞책, p.88.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는 무명인 반면 후자는 명주로 그 재질에서 오는 차이로 유추한다. 후자의 농갈색에 대해서 이영은 과거 쪽과 자초로 인색한 청색이 갈색으로 변색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청색의 변색에 대해서도 이태령은 화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이미 발표하였다.³⁰⁾ 따라서 그 측정치가 유사한 전 막장균묘 출토 농갈색 장의 역시 원래는 청색에서 변색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화학적 분석연구가 요구되며, N55와 같이 L값과 a값에서 다른 갈색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그 색의 변색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측정치가 유사한 것으로 표백 혹은 염색을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유물에서 sample을 채취하여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을 통해서 그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태조사기록은 그러한 결과의 한 사례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3) 청색계통

〈표-3〉에 의하면 출토복식 가운데 녹색을 포함한 청색은 N5·N36·N63 등의 3개 sample이 있으며, 각 L*a*b system 측정치의 분포는 〈그림-1〉·〈그림-4〉과 같으며, 그 재현된 색상은 〈표-6〉과 같다. 청색의 경우 sample 각 각이 모두 남색과 녹색 그리고 청색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 L*a*b system 측정치 중 L값은 74.71~37.75(39.96), a값은

9.31~-1.52(13.83) b값은 18.88~-27.62(23.50)이다. N36은 육안상으로는 갈색과 유사하나, 녹색기를 띄고 있어 녹색이 갈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색계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표-6〉 청색계 유물의 변화된 현존색상표

색상				
측정부위	길	전면	소매	전면
측정번호	N36	N5	N62	N63
소재		s	c	c

청색을 나타내는 고유어인 파랑의 어근은 팔이며, 이는 팔에서 변한 것이다.³²⁾ 이러한 파랑은 삭이 발아될 때 '연두색'→ 초록색→파랑색으로 변하는 발아될 때 삭의 색상으로 청을 상징한다. 즉 파랑의 범주는 Green 과 Blue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청색의 범주는 중국과 조선의 문헌에 나타난 범주는 Green 과 Blue 그리고 Black을 들고 있다.³³⁾ 이러한 청색계통의 용어에는 색의 농담(深淺)에 따라 아청(鴉靑)·청(靑)·남(藍)·초록(草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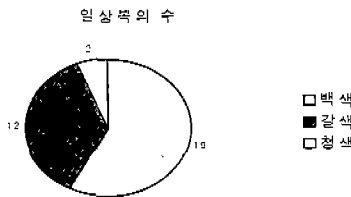
IV. 조선중기 일상복 색상의 특징과 그 의미

30) 李英恩, 韓國傳統染色技術의 化學的 分析을 위한 基礎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9, 1993.
 31) 이태령, 앞글, 화학적으로 청남색섬유와 인디고 Indigo의 검출S-A-3의 청남색섬유는 현미경하에서 관찰하면 어떤 부분은 마치 청남색 페인트를 소수성(疎水性)을 띄고있다. 질산에 대한 반응으로 적황색으로 변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반응은 남(藍 Indigo)일 가능성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인디고는 비교적 전리성이 좋으나 질산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적황색의 이사틴(Isatin)으로 다음과 같이 변한다.
 32)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象徵辭典, 東亞出版社, P. 606-607, 1992.
 33) 元美浪, 靑色을 통해 본 중국 概念色의 문제, 《공간》 제102호, 1975, p.9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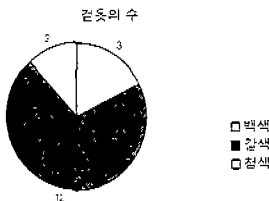
조선중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일상복의 색상은 <그림-5>와 같이 백색계, 갈색계, 청색계의 순으로 백색이 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계절변화에 따른 자연의 색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상복의 색상은 의복의 착용역할³¹⁾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는 <그림-6>와 같이 의례복이나 일상복인 겹옷에서 갈색·백색·청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16·17세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일상복의 색상분포

종류 의 수	백색		갈색		청색	
	겹옷	받침옷	겹옷	받침옷	겹옷	받침옷
총수	3	16	12		2	
	19		12		2	



<그림-5> 조사 출토복식의 색상분포



<그림-6> 조사 출토복식 중 겹옷의 색상분포

<백 색>

조선중기 출토복식의 변색된 백색은 미색으로 보이는 백색과 옅은 갈색으로 보이는 소색으로 구분

한다면 표백한 것(白色)으로 추정되는 그룹2는 도포·구의·저고리 등 겹옷과 등정 혹은 끝동과 의복의 일부에 유색(갈색과 청색) 염색된 것(N62, N20, N22) 반면 표백되지 않은 것(素色)으로 추정되는 그룹3은 받침옷인 창의·속저고리인 칼깃저고리류와 속곳류 등의 받침옷과 안감이었다(<표-3>참조). 특히 유물가운데 전박장군 출토 청색무명창의(N62)와 백색명주겹유저고리(N20·N22)에서는 길(胴)은 백색이며 끝동 및 밑도런부위가 청색과 갈색으로 부분 염색되어 있는 반면 백색은 표백한 백색이었다.³⁵⁾ 즉 유색(有色)으로 염색하기 이전 표백처리를 먼저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겹옷이나 등정 혹은 끝동에는 백색을 사용한 것으로 겹옷에 사용되는 의복에는 표백한 백색을 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의복문화에서 표백을 생활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선중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던 흰색은 백색, 즉 염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색염색이라 할 수 있는 표백을 통한 백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백색은 소색으로 무장식 혹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색³⁶⁾의 미는 물론 표백을 통한 보다 청정하고 순결한 백색의 배재된 아름다움을 곁들여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유추하며, 이는 복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백색은 오행에 의한 금색(禁色)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자 등의 도포에서 백색 혹은 유색을 선호한 것도 이러한 고유의 복사상이 지배적이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백색의 착용은 고유 복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복사상이 한국인 고유정서에 중심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후 사람들이 도포 등에 이러한 백색을 선호한 것 역시 고유사상을 중시하는 국수적인 사상이 반영된 것이

이은주,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정채과 흑색, 한국외류학지 vVol.18, No.1, 1994, P.124-126.

34) 장인우, 앞글, p.138-142.

35) 장인우, 앞책, p.

36)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1994, p.58-59.

柳恩熙, 앞글 p.100.

아닐까 생각한다.

〈청 색〉

출토복식에 나타난 청색은 그 수는 적지만 남색(N5)·청색(N62)·녹색(N36)이었다. 이러한 청색의 범주는 아청(鴉靑)·청(靑)·남(藍)·초록(草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남자의 경우 신분이 높고 의례적인 의복일수록 아청(鴉靑)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청은 대대(大帶) 혹은 광다회 및 버선의 끈 등으로 의복보다는 끈류의 장식품에 이용되었으며, 남(藍)과 초록(草綠)은 여자의 의복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치마는 남인 반면 초록은 저고리류에 또 유청은 여자의 가리개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⁷⁾ 또 초록은 왕세자의 용복³⁸⁾의 색, 또 당의 등 여자의 의례복외에 부정적 혹은 낮은 계열의 의복의 색³⁹⁾이었다. 이는 녹색이 청색계열에서 아청 그리고 청은 양의 색으로, 남과 초록은 음의 색으로써 지니는 상대적 개념⁴⁰⁾을 적용시킨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출토복식에 나타난 일반인의 청색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복으로 추정되는 장의(長衣)와 목판깃저고리⁴¹⁾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청과 청은 양의 색으로 남성의 의복에 음의 색인 초록은 여자의 의복에 적용시키는 것은 오행설에서 동방인 우리나라 즉 목국(木國)의 색이 반영된 것이라 추정한다.

L*a*b system 측정치의 변화는 색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표-8〉 L*a*b system 측정치 변화

종류	측정치	L값의 변화		a값의 변화		b값의 변화	
		범위	폭	범위	폭	범위	폭
백색	G1	99.39~106.56	8.18	-0.18~-2.91	3.09	-16.74~-0.74	17.48
	G2	82.42~99.44	17.02	-0.7~-6.52	7.22	-4.05~-18.33	22.39
	G3	63.15~79.93	15.78	0.83~-8.73	7.9	12.43~-24.60	12.17
	G1·G2·G	63.1~106.56	43.45	4.31~-0.23	4.54	22.31~-8.97	13.34
갈색		73.70~23.55	50.04	9.34~-4.52	13.52	28.13~-15.02	43.15
청색		74.71~37.75	36.96	9.31~-4.52	13.83	18.88~-27.62	23.50

출토복식에 나타난 색의 L*a*b system 변화의 범위와 폭은 〈표-8〉과 같다. 특히 측정치가운데 L값의 변화는 동색계(同色界)에서는 가장 크게 변화하며, 백색의 경우 L값이 63.15~79.93, 82.42~99.44, 99.39~106.56의 G1·G2·G3의 순이다. 이러한 G1·G2·G3의 차이는 밝기에 의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1〉〈표-3〉참조). 이는 동색계에서의 색차는 L값 즉 명도에 의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의 갈색이나 청색은 a값과 b값에서 백색보다 변화의 폭이 크다. 이는 유색(有色)의 경우는 a*b 값 변화의 차이가 백색에 비하여 넓게 나타난다. 이는 색의 경계(범주)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존 과거 유물의 백색·갈색·청색은 서로 변색에 의해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42) 이태녕,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1), 1972. 불국사 삼층석탑 유물 중의 직물 잔결섬유류의 색상은 녹색·갈색·녹두색·담황색·녹황색·연갈색·담황색·녹황색 등의 녹색과 갈색계통 가운데 갈색계통은 청색이 변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3) 韓國文化象徴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象徴辭典, 東亞出版社, 1992. 아청은 검푸른색 청홍색 또는 갈매색 반물 등의 다양한 이름이 있다. 아(鴉)란 갈가마귀의 깃색이 푸른 색이 도는 검정색으로 아청 (또는 아청)이라는 색명이 나왔다.

37) 고복남, 앞책, P.552-559.

38) 이은주, 앞글, P.124.

재인용, 《증중실록》 33年5月 己卯, ...傳曰 世子服色改以草綠戎服 改用鴉靑...

39) 김지연·김영인, 한국인의 녹색 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5집, P.165.

40) 원미량, 앞글, P.94.

41) 장인우, 앞글, P.136-137.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학연문화사, 1996, p.36,51,53,93,사진 참조

출토복식 중 변색된 현존 갈색의 일부는 백색의 직물이 황변에 의하여 변색된 것과 갈색이 퇴색된 것 그리고 청색이 변색된 것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색들의 L값이 유사하나, a값과 b값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 경계가 애매하다. 특히 갈색 가운데 L값과 a값에서 다른 갈색과는 달리 상반된 측정치를 지닌 전 박장군 농갈색 장의 갈색은 자초와 쪽으로 염색한 청색이 변색된 갈색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과거 유물의 현존 색상은 갈색으로의 변색⁴²⁾된 것으로 그 원래 색상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유물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좀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각 색상의 염료의 성분을 분석한다면 이러한 L*a*b값에 의해서 유물의 색과 염료의 추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정정되어야 할 명칭

출토유물의 명칭은 출토당시 조사자에 의해서 명명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이 때는 유물의 색상·소재·유형·종류의 순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명명된 이름가운데에서 특히 색상부분이 실제의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료 가운데에서도 전 박장군의 소재명주누비겹유저고리(N28)의 색상은 실제로 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 박장군 출토 아청색소화당초문단견당저고리는 실제 색상은 갈색인 반면 그 명칭에서는 청색인 아청⁴³⁾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백색계통의 유물은 거의 그 색명이 소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 연구한 색차에 표백의 유무(有無)에 따른 백색과 소색을 구분하여 적용시킨다면 상당한 유물의 명칭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글

16·17세기 출토복식에 나타난 색상은 양적으로 백색·갈색·청색의 순으로 분포되었으나 겹옷과 속옷의 의복역할에 따라 분류하였을 경우는 갈색·백색·청색의 순이었다. 이는 조선중기 일상복에는 백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겹옷으로는 갈색이 주로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토복식의 L*a*b 측정치는 색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채색과 무채색은 L*a*b 값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 특히 L값 즉 명도에 의해서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또한 무채색안에서는 이 L값의 크기에 따라 현재의 재질과 과거의 표백한 재질 그리고 표백하지 않은 재질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채색인 청색과 갈색은 유사한 명도안에서도 b값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백색·청색·갈색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일반복식의 색으로 이는 한국의 자연인 하늘과 땅의 색으로써 자연과 의복을 동일시하는 의복을 통하여 자연주의 사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각 색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거 옷감 중 백색은 2종류이었으며, L*a*b 측정치가운데 L값 즉 명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표백(漂白)의 유무(有無)에 의한 것으로 표백한 백색(白色)과 표백하지 않은 소색(素色)의 2종류로 추정한다. 특히 그 가운데 의례복(일상복의 겹옷)은 주로 표백한 백색이었다. 이는 자연색을 표백이라는 마름질을 통한 제2의 형태 변화로 새로운 이미지를 변화시킨 것이므로 소색을 표백을 통하여 그 재질에 숨어있는 미(美)를 드러나게 하여 내재적인 미를 돋보이게 하였던 것으로 해석한다.

유채색인 갈색과 청색은 L값에서는 갈색이 비교적 변화의 폭이 넓고, a값에서는 갈색·청색이 유사한 반면 b값에서는 갈색이 청색보다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유채색은 L값과 a값에 의해서 그 구분이 가능하였다. 특히 현재 출토복식의 변색

된 색상가운데 그 L값과 a값이 다른 갈색과는 상반된 측정치를 지니고 있는 예가 있다. 이는 환원염색으로 된 청색이 변색하여 갈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출토복식 중 갈색유물의 L값과 a값에서 색상을 이해할 때 그 원색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청색은 L^*a^*b 측정치가운데 a^*b 값의 수평적 차가 큰 것으로 동색(同色)안에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변색되어 갈색기를 띤 녹색과 청색 그리고 남색의 3종류이었으며, 이러한 청색은 조선중기 의복가운데 대부분 가장 고유하고 기본적인 의복인 장의(長衣)와 목판깃저고리에서 여자의 의복은 녹색 중심인 반면 남자의복은 청색 중심이었다. 이는 착용자의 성에 따라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을 통하여 음양사상(陰陽思想)을 적용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 일상복은 자연주의 사상이 중심이었으며, 각 색상은 전통사상인 북사상과 음양사상 그리고 오행설의 중심사상을 바탕으로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양오행설의 외래사상 중심의 의례복과는 그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복식에 있어서 색상구성은 당시 사람이 지니고 있던 사상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발굴되는 출토복식은 발굴후 필수적으로 세척과 보존작업을 거치게 됨에 따라 일부 변색이 불가피하나 현재로는 과거 복색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유물마다 이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성분고찰을 할 수 없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거 유물의 측정치를 측정하여 이를 통하여 유사성과 그 범주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 복식의 색상과 그 염색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본격적인 전통색 연구를 위한 기초적 시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하여 유물의 조사를 허락하여준 충북대학교 박물관 이용조관장님 우종윤선생님, 색차측정기 Minolta

Chroma meter를 빌려주신 중앙대학교 화학과 고경신교수님 또 색차측정치를 Mathematica에 의한 3차원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천대학교 수학과 양미혜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1991.
- 2) 柳恩熙, 韓國의 白衣象徴에 관한 研究, 服飾 제 20호, 1993.
- 3)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6·17세기 우리나라 출토복식, 학연문화사, 1995.
- 4) 三國志集解, 魏書 東夷 夫餘,
- 5) 국역 高麗圖經, 고전국역총서1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 6) 閔周植, 《韓國古典美學思想의 展開》, 〈韓國美學試論〉,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 7)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89.
- 8) 柳正東, 〈한국성리학의 기초〉, 《東洋哲學의 基礎的 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p.459, 1986.
- 9) 昆湖한說, 권2, 萬物間彩色,
- 10) 高福男, 韓國傳統服飾研究, 一朝閣, 1986.
- 11) 曹圭和, 百濟服飾研究, 의류학회지 vol .4,no. 1&2, 1980.
- 12) 三國志集解, 魏書 東夷 夫餘,
- 13) 家禮原流,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番號1633.
- 14) 辭海, 臺灣中華書局印行.
- 15) 이정숙, 조선시대 면직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16) 이태녕·이건우·허현옥, 〈직물 및 지류문화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I)》 원자력연구소, 1972.
- 17) 심화진, 兒童韓服에 나타난 색과 문양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1997.

18) 高福男, 韓國傳統服飾研究, 一潮閣, 1986.

19) 金鎮姬,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과 日本植輪 服飾比較, 梨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20) 李英恩, 韓國傳統染色技術의 化學的 分析을 위한 基礎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21)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象徵辭典, 東亞出版社, 1992.

22) 琴基淑, 朝鮮服飾美術, 열화당, 1994.

23) 원미량, 청색을 통해 본 개념색의 문제, 《空間》第102號, 1975.

24) 이은주, 한국전통복식에서의 청색과 흑색, 의류학회지, 18권 제1호, 1994.

25) 김지연·김영인, 한국인의 녹색 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5호.

26) 忠北淸原郡 傳朴將軍墓出土遺物, 重要민속자료 지정조사보고서, 金東旭·劉頌玉, 文化財管理局, 1980.

27) 忠北槐山郡金緯墓出土遺物, 重要민속자료지정 조사보고서, 金東旭·劉頌玉, 文化財管理局, 1980.

ABSTRACT

A Study on the Color of Daily Clothes of Middle Era of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lor of daily clothes of middle era of Yi Dynasty by examining the color of excavated clothing which was the real clothes in 16th and 17th centu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lie in understanding emotional feeling observed by exact measurement of the color of the excavated and devising a method of reserving the color of the excavated by inspecting the discolored color of the excavated. For this, the color difference was measured by color measuring system, Minolta Chroma-meter, and then recorded in L*a*b system. The 3-dimensional color difference was observed by analyzing these data on Methmetica and change in color with ageing was assessed by reconstructing the color by Phoposhop. The color construction of daily clothes of middle era of the Chosun Dynasty was founded on a philosophy, and it was made up of colors such as white, brown, and blue. This color construction seemed to be based on the philosophy of naturalism symbolizing surrounding nature, e.g., white symbolizes Bak-sasang(bak-philosophy) and blue implies Eumyangohangsul.